

LG산전(주)

신사업으로 전력IT시스템과 칩(Chip) 비즈니스 추진

LG산전은 향후 3년간 전력IT시스템과 칩(Chip) 비즈니스에 총 250여 억원을 투입하는 등 핵심역량을 근간으로 한 신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산전은 세계적인 추세인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국내에도 전력의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전력IT시스템 시장과 전력부하제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신사업 기획팀의 주도하에 50여명의 연구인력을 투입, 관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력IT시스템 사업이란 전력시장의 수요 및 공급예측, 여유전력조사, 송전과 배전계통에서의 정보처리를 모두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LG산전은 핵심역량인 에이직(ASIC: 주문형반도체) 기술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칩(Chip: 반도체 소자) 비즈니스를 신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자동화기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피버스-DP용 칩과 모션컨트롤용 칩을 지난 해 개발 완료한 LG산전은 전자식계량기용 칩 개발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여 국내외 전자식 전력량계 제조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의 핵심부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네트워크 프로세서를 3년내 개발하여 정보통신분야 뿐만 아니라 산업용 기기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칩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LG산전 중앙연구소 문전일 박사는 “LG산전이 개발한 칩은 지난 4월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때 딜러들과 업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음은 물론 적극적으로 구매담을 요청해 오고 있다”며 “국내 산업용 기기에 적용되는 칩은 대부분 외국업체로부터 고가로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LG산전이 신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국내시장에서 전망은 매우 밝으며 해외시장에서도 선진업체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LG산전은 향후 3년내 신사업 매출목표를 3천억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주)

무주양수 무재해기록 10배 달성

한국남동발전(주) 무주양수발전처는 2002년 6월 5일 무주 양수강당에서 전직원과 한국산업안전공단 전주산업안전기술지도원 원장 및 관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재해 기록 10배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무주양수발전처는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무재해기록 10배 인증서와 인증패 및 무재해기록 대형정기를 전달받았으며, 최원필 처장은 산업안전공단이사장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최원필 처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도 노사가 협심 단결하여 무재해 기록을 계속하여 이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으며, 양윤열 산업안전공단 전주산업안전기술지도원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13년 8개월 동안 재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모든 무주양수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번 무주양수발전처의 무재해기록은 1988년 4월 15일부터 2002년 1월 1일까지 5,024일 동안, 즉 13년 8개월간에 걸쳐 무재해를 기록한 대기록이며, 앞으로도 20배, 30배 무재해 기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 6호기 상업운전 개시

한국서부발전(주)는 2002년 5월 28일부터 태안화력 6호기의 상업운전을 개시하여 월드컵 및 하계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하게 되었다.

1997년 11월 착공하여 4년 7개월간의 대역사 끝에 6호기가 준공됨으로써 기저부하 전원용량은 300만kW에 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안정된 수익기

반도 갖추게 되었다.

태안화력 5, 6호기는 건설기간 중 IMF 구제금융 위기 등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5호기 4, 5개월, 6호기 4개월 단축이라는 성과를 시현하였다.

태안화력 5, 6호기 건설사업은 “발전설비제작 일원화” 조치 해제 후 첫 발주한 사업으로서 기존 표준 석탄화력과 다른 발전설비로 건설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축적된 건설경험을 활용하고 본사와 사업소가 혼연일체가 되어 종합사업관리를 추진하여 오늘과 같은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종합 시운전 중에는 사상초유의 38일간 파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한국중부발전(주)

지식경영사례 발표회 개최

한국중부발전(주)는 지식경영기반 구축을 통해 강한 기업문화를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지식경영추진



진사례 발표회를 6월 12일 본사 대강당에서 경영진과 본사 직원, 사업소 e-GEN(전자발전) 추진핵심요원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날 행사는 중부발전과 같은 설비분야의 우수 지식기업으로 일컬어지는 SK케미칼의 지식경영 추진실무자로부터 고객중심 경영, 베스트 프랙티스 활용,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해결, 신사업 기회 창출 등을 중심으로 지식경영 추진사례를 들은 후 특강순으로 진행되었다.

중부발전 김봉일 사장은 이날 특강에서 우리를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식경영 활동을 해왔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중부발전도 이를 좀더 정교하게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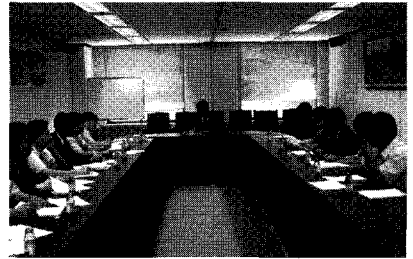
이날 발표회는 지난 5월 25일, 6월 5일에 이어 3번째로 설비산업분야 우수기업의 지식경영 추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자리였다.

한국남부발전(주)

남전 Junior Board(청년이사회) 제1기 발족

한국남부발전(주)은 6월 11일 본사 회의실에서 남전 Junior Board 발족식을 갖고 제1기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6월 한 달을 ‘경영활력 증진의 달’로



정하고 자율경영혁신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남부발전은 직원과 경영층간의 경영정보의 통로기능을 하게 될 Junior Board를 발족, 경영활력을 배가시키고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선도하여 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날 발족한 Junior Board는 승격 5년 이하 과장급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직원과 경영층간의 쌍방향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Junior Board 제도의 유래는 1932년 미국의 ‘맥코믹’이라는 식료품회사에서 시도된 것이 처음으로 기업 내에서 유능한 인재를 골라 이사회에 회부되는 안전을 미리 다루고 그 결론을 이사회에서 참고하는 제도이다.

발족식에 이어서 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경영혁신 추진회의에서는 본사 19개, 사업소 167개 등 총 186개의 경영혁신 추진팀의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경영활력 증진을 위하여 기획 기능강화를 점검하였다.

한편, 12일에는 관리본부장실에서 '경영혁신 및 성과관리 대책회의'를 열어 5월 재무기반 강화의 달 추진실적 및 6월 경영활력 증진의 달 운영계획을 살펴보고 1/4분기 중의 전반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 관리를 재점검하였다.

현대중공업(주)

월드컵 산업시찰로 '문전성시'

現代重工業이 월드컵 산업시찰의 명소로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시설로 '월드컵 특수'를 누리고 있다.

6월 1일 덴마크 요아킴 왕자가 하루 동안 묵으며 현대중공업의 설비와 기술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데 이어, 3일에는 헤이그 코트프리트 가인곱(Hage Gottfried Geingob) 나미비아 총리 내외가 경제사절단 10여명을 대동하고 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

이들 총리 일행은 이날 오후 현대중공업의造船현장과 엔진 제작공장을 둘러보고 최길선 사장, 정익영 엔진사업본부장과 상호 협력 관계에 관해 논

의할 예정이다.

이날 토고 명예영사와 브라질 산토스시 대표단을 비롯해 아시아 축구연맹(AFC) 인사 1백여명과 80여명으로 구성된 홍콩 축구 관광객도 회사를 방문했다.

건설장비사업부는 이날 중국과 터키 고객 1백여명을 초청해 장비 시범쇼를 갖는데 이어 저녁에는 터키와 브라질 경기를 관람했으며 6월 4일에는 탄자니아, 터키, 스웨덴 고객 60여명을 초청해 같은 일정으로 한국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해양, 플랜트, 엔진 등 각 사업부별로 선주 등 고객 초청행사가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시찰단 외에도 월드컵 참가국의 언론으로부터 취재의 대상이 되었다.

또 총 9개의 선박 건조도크를 갖추고 연간 60여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세계 최대의 조선 및 종합 중공업 회사로서의 웅장한 불거리가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도 외국 언론의 관심을 끄는 이유 중 하나였다.

월드컵 열기가 더욱 달아오르면서 현대중공업을 찾는 외국 관광객과 언론 매체의 방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월 한달 동안 휴일 비상근무체제를 갖추는 등 월드컵 방문객을 맞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에서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6대를 3천 6백만달러(한화 약 442억원)에 수주했다.

미국 필라델피아 항만청으로부터 컨테이너 크레인 2대를 수주하여 7월 초 계약 서명을 앞둔 현대중공업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항만청과 슈퍼포스트파나막스급 22열 크레인 4대(옵션 2대 포함)를 추가로 계약했다.

슈퍼포스트파나막스급 선박이란 파나막스급(선폭 32m, 6~8만 톤급)보다 큰 대형 선박을 의미하며, 22열 크레인은 이러한 대형 선박의 선체를 들리거나 이동하지 않고도 모든 화물을 선적·하역할 수 있는 정도의 대형 크레인으로 한 번에 1만2천 TEU 규모의 화물 운반이 가능하다.

지난 '99년 우리 나라 최초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항만청에 컨테이너 크레인 4대를 납품한 바 있는데, 당시 납품 기한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설치를 완료했을 뿐 아니라 운영 실적에 있어서도 경쟁회사의 제품보다 20% 이상 높은 효율을 보이고 고장도 적어 발주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수주한 총 6대의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은 2003년 9월말 납품 완료할 예정이며, 연이은 미국 동부 시장 수주로 품질을 인정받은 현대중공업은 향후 중남미 시장에서의 영업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